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문화 간 사회를 꿈 꾸며*

**FACING RACISM**  
*A Vis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ty*



전체교회 반 인종차별주의 정책

**CHURCHWIDE ANTIRACISM POLICY**

*As Approved by the 222nd General Assembly (2016)*

#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문화 간 사회를 꿈꾸며

## Facing Racism: A Vis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ty

Copyright © 2016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본 문서의 부분이 재생되거나, 검색시스템에 저장, 혹은 전자, 기계, 사진, 기록 방식으로 전달(잡지나 신문에 간단한 인용은 제외)됨을 금한다.

미국장로교 당회, 노회, 그리고 대회는 이 출판의 부분을 발행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FACING RACISM

문화 간 사회를 꿈꾸며<sup>A</sup> Vis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ty

## 개론 INTRODUCTION

전체교회 반 인종차별주의 정책 팀<sup>Churchwide Antiracism Policy Team</sup>은 1999년 반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며 사역을 시작하였다. 약간의 참고자료는 보완 수정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과 분석은 지금과 별다름이 없는 것이 1999년 이후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성명과 권장사항에 관하여 지난 몇 년 사이에 무엇이 효과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팀이 서로 동의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보완 및 수정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교회전체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자는 일이었다. 간략하고 강한 인상의 언어로 작성된 약식의 비전성명서는 본 정책(밑의 비전성명서를 보라)의 분석과 공약을 보존하여 준다. 본 비전성명서는 독자들에게 본 정책의 요약 및 개론으로 초청하며 또한 간단 명료함이 필요할 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정책 팀은 또한 대담하게 솟아오르는 열망을 기대한다. 지금은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 안에서 현존하는 인종 정의에 대한 투쟁은 *카이로스* 시점에 와 있다. 미국장로교회는 인종차별주의의 죄와 투쟁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강한 신념으로 자각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신념을 지금 명확하고 힘있게 이야기 한다면, 현 투쟁에 명백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요구된 사명이다. 이 때에 강하게 이야기 함을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전체교회에 본 정책을 가까이 하도록 초청함과 함께, 본 팀은 여섯 개의 학습가이드 시리즈를 만들었다. 각 안내는 성인 혹은 십대가 모여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다. 함께 사용하면 기독교 신앙과 관계된 인종 및 인종차별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육학의 도구로 제공된다.

학습가이드는 본 정책이 다루는 주제와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비전성명서로부터 나온 언어 및 생각과 또한 같다. 여섯 개의 가이드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성서적 명령,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함께하는 구상, 미국장로교회와 인종 간의 화해, 인종차별 101,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유산 견디기, 그리고 신앙공동체로서의 대응이다. 이 훈련 도구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회중 혹은 노회들을 위한 반 인종차별 자료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가이드는

<http://www.pcusa.org/racialjustice> 에 링크되어 있다 (장로교 선교국의 인종 정의 웹 사이트).

마지막으로, 팀은 새로운 정책 추천을 형성하였다. 미국장로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많은 변화를 시행하였다. 새로운 상황에서 반 인종차별주의를 키워나가는 신실하고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팀은 우리의 신학적 확신이 교단 전체의 실천으로 확산되기 위하여 추천사항 몇 가지를 제안한다.

성경은 강하게 계시하길 하나님은 정의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전체의 다양함 속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압박을 거부하고 정의를 진정한 예배로 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구체화 되어 제국의 권력을 거부하고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 예수는 모든 사회와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들을 구성된 공동체를 모으셨다.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 가난하고 부한 자,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백부장과 세리, 가나안인, 갈릴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인 등. 예수는 이러한 공동체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임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함을 기대하며 부르셨다.

장로교 신학자 레티 러셀<sup>Letty Russell</sup>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고 말한다. 예수의 열정, 환대, 정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러셀은 말하기를 예수는 “미래의 기억”이라고 한다 (Russell, 1979, 157). 구속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종말론적인 비전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 우리의 간추린 신앙고백서는 선포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거룩하고 기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신앙고백서, 10.4, Lines 72–76).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심은 축복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정의와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

인종차별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정반대한다. 이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상반되는 일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일종으로 신성한 은혜의 자유를 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층을 높이 올리는 것이다. 식민지 형성과 노예제도를 통하여 미국은 인종과 피부색깔을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유지하여 왔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백인우월주의이다. 이 시스템은 물질, 정치, 그리고 사회적 이점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그룹을 의도적으로 정복하였다. 인종차별은 백인우월주의의 지속된 유산이다. 인종차별은 우리 동료 인간들을 부정하는 거짓으로서 누군가는 다른 이보다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짓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편애하신다는 거짓 주장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장로교회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며, 반대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반 인종차별의 노력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제자도의 필수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함에 실패하는 것이다.

유럽인들에 의하여 미국이 침략당한 후 토착민들은 백인우월주의에 의한 잔인한 결과를 견뎌내야 했다.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낮은 출산, 수입, 그리고 교육 지표를 유발하였으며 높은 치수의 자살 및 다른 유형의 폭력을 가져왔다. 미국 원주민들이 미국 내에서 법률로 제정된 가장 많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종, 투쟁에 대한 지움, 인내, 그리고 공헌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이 되어

버렸다.

반-흑인 인종차별은 처음부터 미국의 조직적인 구성요소이다. 헌법은 아프리카 계 미국인을 3/5 인간으로 정의하며 온전한 인류로서 부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기초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을 진압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영속하고 있다.

히스파닉/라틴계는 미국 구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특별히 1898년 구아다루페 히달고 조약을 사인함으로 멕시코의 큰 지역이 지금 미국의 남서부가 되었고 미국이 1898년 푸에르토 리코를 침략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히스파닉/라틴계는 아직도 많은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거나 용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미국에서 생활한지 7세대 혹은 1세대인지 상관없이 영속적인 외국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한다. 엄청나게 다양한 아시안 계 미국인의 인구분포도는 예를 들어 중국 계 미국인과 캄보디아 계 미국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와 독특한 공헌들을 지워버리고 있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내의 인종차별로 압박, 착취, 불평등을 계속하여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인종을 흑백논리로 규정하는 영구적인 집중이 서로 다른 그룹간의 연대를 방지하는 백인우월주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안 계 미국인들을 모델 소수민족으로 치켜 세움으로써 백인우월주의의 편의를 위하여 흑인과 백인 사이에 “씌기”를 박는 역할로 강등시키는 일이다.

인종차별은 많은 여러 인종 그룹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주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이것이 아프리카 계 미국인 사회에 고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미국 역사 속에서 (짐 크로우<sup>Jim Crow</sup>와 노예제도를 포함하여) 그리고 오늘(대량 감금, 과격한 치안,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지속되는 모습의 인종폭력과 증오를 포함하여)날 모두 벌어진 반 흑인 인종차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님은 흑인을 사랑하신다. 너무 많은 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였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은 인종차별을 거부하고 흑인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무수한 형태의 모든 인종차별을 거부한다. 장로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다양성을 이루고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이 안겨주는 분명한 자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 고백, 그리고 회개에 관하여 지혜를 물려 받았다.

개혁신학은 죄에 대한 미묘한<sup>nuanced</sup>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칼뱅은 죄를 간단히 개인적 믿음, 행동, 혹은 도덕적 실패라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 (Calvin, 1960). 오히려 그는 죄를 모든 인류의 제도적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를 더러움으로 감염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어떤 부분도 – 우리의 지각, 지능, 혹은 양심 – 죄로 덮여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인류가 끔찍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자신의 의를 겸손하게 여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함을

말한다.

19세기 신학자 프레드릭 쉐라이어마허는 죄의 제도형 그리고 공동체형의 성격을 되풀이 하여 설명한다. 그는 기록하기를 죄는 “모든 자들의 일이요 또한 각자의 모든 일이다”라고 한다 (Schleiermacher, 288). 그는 “원죄”와 “실제 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죄의 행동과 각 사람의 신앙(실제 죄)은 하나님과 상반(원죄)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람들이 원죄의 모습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면, 그들은 실제 죄를 짓고, 그 사이클은 계속된다. 이러한 오랜 유행의 용어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현대적인 문제를 이해함에 도움이 된다. 고집불통의 믿음, 증오 범죄, 편견, 그리고 의도적인 차별 등은 모두 실제 죄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에워싸는 인종차별 시스템의 원죄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옛 세대의 실제 죄 - 예를 들어 노예제도, 인디언 제거 법, 중국인 제외 법, 하와이와 괌 식민지화, 1924년 이민법, 그리고 다수 - 는 지금 우리 삶의 원죄가 되었다.

이는 교육, 재정, 수입, 그리고 기회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을 각성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백인 남성이 1945년 이후 육군에서 제대한 후 집에 돌아옴을 보자. 군대 법은 대학 입학금과 집을 매입하기 위한 저이자 용자, 미국원주민들로부터 힘과 강제로 압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땅을 주었다. 흑인 남성은 같은 기간 육군 복무를 하였으나 군대 법 집행과 주거지 차별로 인한 만연한 인종차별로 같은 혜택을 얻지 못하였다. 2015년도에도 백인 남성의 후예들은 유산된 재물(주택 담보)혜택을 받지만 흑인 남성의 손주들은 받지 못한다. 아무도 오늘 이러한 불평등이 계속된다고 실제 죄를 범할 필요는 없다. 원죄는 변창하기 위한 우리의 의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침묵으로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처럼 죄에 대한 미묘한 개념은 특별히 좋은 뜻을 갖고, 편견을 갖지 않으며, 편협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계속하여 원죄에 머무름을 이해함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미국에서의 백인들은 비록 각 개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믿고는 있겠지만 백인우월주의의 혜택을 계속하여 집합적으로 거두어 들고 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유산은 장로교인으로서 개인적 무죄의 환각을 옹호함보다는 복잡한 현실의 인종차별을 인정함을 더 가능하게 하여 준다.

우리의 전통이 주는 두 번째 귀중한 자원은 고백과 회개의 중요성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자기 혐오나 마비된 죄책감을 유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반대로 적절한 대응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일이다. 고백을 갖게 하는 은혜는 또한 회개하도록 힘을 실어주며, 이어서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걷게 하고, 하나님 새 창조의 종말론적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고, 그리고 감사, 겸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심으로 이 은혜에 응답한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일에 대하여 무언가 알게 된다. 개신교의 일에 대한 윤리 관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결심, 고집, 그리고 완고한 힘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관련된 사항을 부동켜 안는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반 인종차별의 일을 하도록 우리자신을 헌신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의 차이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명예를 걸 것이다.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 평등을 이해하는 폭을 확장시키는 일이다. 죄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의 겸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전체사회의 비전을 향하여 반복하며 나아간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쁜 감격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 참고 문헌 REFERENCES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60.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1: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K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14.

Russell, Letty M. *The Future of Partne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9.

Schleiermacher, Friedrich. *The Christian Faith*, edited by H.R. Mackintosh and J.S. Stewart. Edinburgh: T&T Clark, year unknown.

## 성서적 및 신학적 기초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문화 간 사회 God's Purpose for Us: The Intercultural Community*

인종차별에 대한 현대의 문제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분명한 성서적 및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인류의 의미에 대한 개혁신앙의 시각은 존 칼뱅의 역설로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칼뱅이 읽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들은 논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서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 나온 성격과 자질들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이다: 상상력, 지적인 능력, 영, 감정, 결정하고 숙고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선과 악 및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분별하는 도덕적 양심 등이다.

칼뱅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여 성서가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의미를 포착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종교개혁자로서 이러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가치적 판단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립하고 있다. 하나님 모습의 지울 수 없는 날인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예로운 창조의 업적에 특별하고 성스러운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의 가치와 값을 알고 계시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계신다.<sup>2</sup>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함은 중대한 일이다. 인류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목적은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하면서, 인간은 모든 인간 삶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반듯이 감사하고; 사랑, 존경, 존엄의 법칙을 따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애정의 연결을

양성하는 도덕적 책임을 취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상처의 태도와 해로운 행동을 피하고; 그리고 정의를 기본으로 타인을 대우 한다.<sup>3</sup> 그러므로, 칼뱅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하나님 명령으로서의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연결을 확립하였다. 성서의 이야기는 경험적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가 인간관계를 안내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교훈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인류사회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행위를 보여주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사회에 정의를 구현하시는 중요한 설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공동체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시며, 또한 인간 가족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 하신다.<sup>4</sup> 출애굽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을 세우기 위하여 언약의 율법을 주시는 일로 뒤 따른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맺는 언약의 관계이고, 또한 유도적으로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준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진실성의 결합으로 세워졌고, 또한 기관의 사회 및 개인 멤버들이 서로 공정하게 거래하는 도덕적 책임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이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표현이다.<sup>5</sup> 만약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이 사랑과 정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어 공동체의 금이 간 모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부르시고, 또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간청하신다.<sup>6</sup>

신약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 헌신에 대한 시각을 채택하고 발전시킨다. 도덕적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보강은 올바른 관계를 뒷받침 하여주며 사람,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증언된다. 예수님은 아모스,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의 전통 안에서 견고히 서서 정의와 자비의 진지한 비중을 무시하는 자들을 비난하시고, 또한 불우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민족이 심판 받을 것임을 선포하신다. 법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사랑과 정의로 표시된 이웃간의 관계 사이에서 드러난 언약의 무결성<sup>integrity</sup>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은 뗄 수 없는 관계의 사항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과 산상수훈에서의 그의 명령에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포하길 인류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형제애로 서로 돕고 돌보는 가족의 삶과 같다고 하신다 (마5:1-12).

신약의 초대교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의에 대한 헌신을 사람의 해설과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신실한 이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성령의 사역은 교회의 중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인류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양함의 축제와 포용으로 드러남을 계시하고 있다. 더욱이 성령은 만인제사장 설을 주장한 베드로의 선포에 영감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 – 그리스도 공동체의 평등한 모습을 강조하고, 모든 피조물이 갖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행2; 뱀전2:9-10).

마틴 루터 킹목사의 “사랑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는 반 인종차별 비전의 한 예를 제공하며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서적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공통적 태생에 기초하고 있고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 존엄, 그리고 신성함을 유도한다. 이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의 권리,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인류사회의 온전한 멤버로서의 가치 등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떨어져서 온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인간 가족의 연대요 또한 모든 인간 삶의 사회적 성질이다. 모든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누며 서로 관계되어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종과 문화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각으로 축하하여야지 뛰어 넘어야 할 장벽으로 보지 않는다.<sup>7</sup> 사랑 커뮤니티 혹은 시대적으로 말하여 ‘문화 간 커뮤니티’는 다양성이 받아들여진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상징한다; 여기에는 피부 색깔보다는 한 개인의 성격 내용이 더 중요하며;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가 모든 관계의 탁월한 표준으로 드러나며; 또한 기관의 권력이 도덕적 가치로 인간화되어 정의를 실현함을 말한다.<sup>8</sup>

*우리는 누구인가: 깨어진 커뮤니티 What We Are: The Broken Community*

교회는 죄가 퍼지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죄의 악성의 현실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창세기에서의 타락에 관한 성서적 이야기는 창조질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인간의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조명한다.<sup>9</sup> 인간의 행동은 인간 및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결정적으로 파괴한다. 타락은 죄의 현실과 본성을 가리킨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혹은 소원된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이 소원된 상태는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외관을 더럽힌 상태의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훌륭히 지키는 능력이 손상을 입은 것이다. 죄의 결과는 인간관계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sup>10</sup>

이런 까닭에, 인간의 의지, 지능, 그리고 감정으로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적 관계의 커뮤니티를 세우고 유지함의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우리는 서로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장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식하기를 우리 자신들이 타락한 생물로서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기관적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신성한 묶임을 위반하는 것이다. 죄와 그 영향은 계속적으로 인간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개혁신앙의 전통은 단언하기를 죄는 비뚤어진 관계와 깨어진 언약 계약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sup>11</sup> 인종차별, 개인적 편견, 외국인 혐오 등은 교회와 사회가 그 후에 목격한 경험적 검증들로서 여기에는 인종차별과 부당한 다른 형식들을 반복하게 하는 제도적 구조를 세우고 유지하게 한다. 더욱이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품들의 남용; 차별적인 채용 및 주택 사례; 그리고 분리된 교회를 고집함은 죄로 깨어진 사회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여러 징후들을 대표한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언약의 개념이 특별히 중요하였던 이유는 교회와 사회의 올바른 질서와 통치를 다시 세우는 일을 그들이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자들은 긍정하기를 인류의 타락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씨앗으로 남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존재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과 재생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sup>12</sup> 여기에는 역사 속에서 개혁신앙의 교리가 증명하듯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세상의 책임성 있는 인간 활동을 통한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로 새롭게 세워진 관계가 지금 이 순간 가능함을 말한다.<sup>13</sup> 이는 신앙공동체로서 미국장로교회가 사회와 교회에서 올바르게 정당한 관계를 왜곡, 분열, 그리고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여기서의 세력은 인종차별주의이다.

## 교회의 도전 CHALLENGE TO THE CHURCH: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무엇이 미국장로교회를 위한 도덕-윤리적 명령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움직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함을 찾는 언약공동체로서, 현재 진행되는 인종차별과 인종폭력의 죄성에 대하여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부서진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있는가? 우리는 서로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날인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식하기를 우리 자신들이 타락한 생물로서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기관적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거부하고 있다.<sup>14</sup>

우리를 상기시키는 것은 기관교회가 무리하게라도 강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인류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기관의 판단과 행동들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지 분별하도록 하여야 한다.<sup>15</sup> 기관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존재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칭과 성령의 안내를 통한 중재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언약이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로의 부르심은 서술<sup>descriptive</sup>적이며 또한 처방<sup>prescriptive</sup>적이다. 부르심이 서술적이라는 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정의한다. 처방적이라는 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게 한다. 인종차별에 맞서 정의를 위하여 싸움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정의 세력을 거부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므로 반 인종차별주의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탐구하라는 믿음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처방인 것이다. 교회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의 세력을 활동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정의는 추상적으로 결정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상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이것의 개인 및 기관적인 표현과 구조가 보여지고, 이해되며, 뒤집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반 인종차별을 위한 교회는 기관적인 행동과 헌신으로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알려지고, 또한 그 정체성이 반 인종차별의 활동적인 상황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되어야 한다.

미국장로교회는 오늘 날 깨어진 문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기관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반 인종차별주의를 포용함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여야 한다. 인종차별과 인종폭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예언적 발표로 다가온다.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1967년 신앙고백서는 50년대와 60년대 인종분쟁의 비극과 외상<sup>trauma</sup> 속에서 고백되며, 개인적 편견, 외국인 혐오, 기관, 조직, 그리고 구조적 인종차별의 모든 형식에 맞서서 교회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애매하지 않고 분명한 명령을 교회에 내린 것이다.<sup>16</sup> 카이로스<sup>Kairos</sup> 문서는 1980년에 제작되어 남 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의 상황에서 심판과 소망의 예언적 대사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반 인종차별 의사일정과 관련된 입증일 수 있다. 과연 구약에서 설명된 희년<sup>The Year of Jubilee</sup> 이야기는 메시아 구원론, 부와 권세의 급진적인 관계개선, 빛의 탕감, 평화, 그리고 비폭력과 함께 이스라엘이 새로움을 듣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인종차별 및 인종폭력의 단호한 폭행에 맞서서 함께 언약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sup>17</sup>

마지막으로, 교회의 고백적인 표준들인 *총회 회의를*, 정책 문서들, 그리고 신학적 성명서 등이 모두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및 인종폭력에 대한 집단적 거부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교회에 알리는 새롭고 신선한 말로 전하여 진다.<sup>18</sup>

전통, 유산, 신학, 윤리, 그리고 영적 헌신과 함께 미국장로교회는 우리 한가운데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관하여 자기 비판적 분석을 열어 놓는 가능성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는 인종차별을 홍보<sup>promote</sup>하고 영속<sup>perpetuate</sup>하는 공공정책, 활동, 그리고 구조 등을 도전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지한 언약으로 인간사회의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를 시연하며, 그리고 정체성과 행동의 급진적인 변화를 착수하여 반 인종차별의 교회로서 이와 관련된 사고, 판단, 그리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 계속되는 인종차별 문제 CONTINUING PROBLEM OF RACISM

드보이스<sup>Dr. W. E. B. DuBois</sup> 박사는 20세기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라고 관찰하였다.<sup>19</sup> 새로운 세기의 동이 트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계속되는 유산임이 아주 명백하여졌다. 시민의 권리가 미움과 견딜 수 없음<sup>intolerance</sup>으로 더욱 더 위험에 처하며 공공과 정치적 담화에서 양자 모두에게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가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없애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짐과 함께, 법정의 인종차별 대우폐지 계획이 성공적으로 도전 받고 있고, 그리고 연방 법원은 인종차별에 대한 케이스가 삭제되는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sup>20</sup> 차별 철폐 조치는 지난 역사발전의 기초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다.<sup>21</sup> 주로 아프리카 계 미국인 대상으로 저질러진 깜짝 놀랄 수의 교회들이 불 태워 졌다. 미움 대상의 그룹 수가 늘어났고; 미움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터넷상의 웹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 직업 스포츠 팀들이 아직도 미국인 원주민들을 풍자한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클리블랜드 인디안스, 그리고 와싱턴 레드스킨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50년대와 60년대 법적 분리주의를 해체하도록 지레의 힘을 행사하였던 사법부는 새 천 년을 시작하며 역설적으로 인종관계의 부정을 견고히 하는 법적 모르타르<sup>mortar</sup>를 제공하고 있다.

### 역사적 개요 *Historic Summary*

1963년도 1월,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전국 지도자들은 시카고에서 모여 인종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국가에 호소하였다. 나중에, 전국교회협의회<sup>NCC</sup>는 종교와 인종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민인권 운동을 이끌던 마틴 루터 킹<sup>Martin Luther King Jr.</sup>과 함께하고 또한 그 회원들에게 같이 할 것을 촉구하였다. 1963년 5월에는 에들러 하우킨스<sup>Edler Hawkins</sup>가 미국의 연합장로교회를 설득하여 “...교단을 대표하여 특별한 힘을 행사하는 종교와 인종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유능한 교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서,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들인 켄 네이<sup>Ken Neigh</sup>, 유진 카슨 블레이크<sup>Eugene Carson Blake</sup>, 빌 모리슨<sup>Bill Morrison</sup>, 존 코벤트리

스미스<sup>John Coventry Smith</sup> 등의 강한 후원과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였다.<sup>22</sup> 총회는 전권위원회를 위하여 \$500,000의 지출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인종 카운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는 미국장로교회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인종 정의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것이다.<sup>23</sup>

인종차별은 나라의 삶과 역사 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 모든 유색인종은 그 결과의 고통을 겪었다. 미국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에서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예제도, 중국인 배제 행위, 일본계 미국인 대량 투옥, 그리고 히스파닉 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 등 역사적인 압박의 공통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색인종을 압박함에 저항하는 긴 역사가 있다. 그러나, 60년대 흑인들의 저항이 기성교회들의 의사일정에 인종차별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프리카 계 흑인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함께 한 주류교회의 강한 옹호는 법적 인종분리를 멈추게 하였다. 주류교회들은 교회와 민족에 금그어진 유색 선을 근절하는 비전을 추구하였고 시민 권리를 확장하여 모든 사람들이 통합된 삶을 살도록 하였다. 교회가 추구한 기본원칙은 인종차별이란 개인의 편견과 민족 자부심에 대한 결과임을 믿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회들의 프로그램 추력은 개인적 태도를 바꾸고 편협한 신앙을 이기는 것에 집중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국교회협의회<sup>NCC</sup>가 주류교단들 조직형성의 중심적 기능을 하였다, 특별히 그들의 공공 정책 옹호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항의활동과 시민권리 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주류교회들은 1960년도 시민권리 법률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공헌을 하며, 사회의 넓은 분야로 더 큰 공정성의 감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주류교회들의 인종 이슈에 대한 선언<sup>pronouncements</sup>은 그들의 사회적 행동보다 더 강하게 드러났다. 그[행동이 미처 뒤따르지 못한] 이유는 투쟁의 어려움과 인종차별의 깊이 및 모습을 이해함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시민 권리 투쟁의 잔인한 저항은 주류기독교인들 인식의 새로운 수준이 생기게 하였다. 많은 이들이 인종차별의 깊이, 출처, 및 전파력을 알게 되었다. 인종차별은 우리의 문화 안에 깊게 뿌리 내리었고 교단의 무늬로 유지됨을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깨달음은 형제애, 자매애, 화해와 평등의 기회를 강조하는 성장을 가져왔다.<sup>24</sup> 흑인 파워 운동과 제임스 콘<sup>James Cone</sup>이 주장한 흑인해방신학의 출현은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던 주류교회들의 가정<sup>assumptions</sup>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다.<sup>25</sup> 비폭력을 설교한 마틴 루터 킹은 주류교회들과 같은 시각이었기에 해방, 자유,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흑인 투쟁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비폭력에 대한 투쟁적인 비평은 주류교회들에게 불안한 일이었다. 숨은 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소수의 백인들도 있었다. 반면에, 인종차별의 잔인함을 경험하고 노출상태에 있는 유색인종들은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비폭력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진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인종차별의 문제는 백인들이 받아드릴 수 있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확장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더 과격한 전술을 고려함을 열어놓고 있었다.

주택 유형이 바뀌면서 백인 도주<sup>White flight</sup>, 도심에서 교외로의 전거와 재 분리<sup>re-segregation</sup>가 시작됐다, 그리고 인종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통합의 효능을 묻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법은 바뀌고 기관들은 유색인종의 참여와 존재를 허락하는 문이 열렸다. 그러나 통제수단과 권력은 백인들의 손에 남게 되었고 인종통합과

인종차별은 양립하여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sup>26</sup>

1970년대와 1980년대, 차별 철폐조치와 평등의 기회는 인종 정의를 추구하는 주류교회들의 중심적 주제가 되었다. 이들의 사회 정책 성명서는 이 생각들을 지원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기초적 성격에 대한 순진한 수준이 남겨져 있었다. 미국의 연합장로교회 193회 총회(1981)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인종차별의 성격과 깊이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순진함이다. 인종 정의는 그저 개인의 태도와 편협한 신앙을 뛰어 넘는 기능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것이 인종차별의 복잡하고 세밀한 제도의 방법 또한 존재함이다. 개인들의 좋은 뜻과 비 인종차별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 및 사회 기관, 구성, 그리고 시스템은 인종 간의 부정의를 영존시키는perpetuated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다.<sup>27</sup>*

분리의 패턴은 미국인의 삶의 여러 방면에서 지속된다.<sup>28</sup>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교회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다. 주일 아침 11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 예배의 신성한 행위에 참여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에게 한 주간 중에서 가장 분리되어 있는 시간으로 남겨졌다.

장로교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발전되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반듯이 직면함이다. 미국장로교 208회 총회(1996) 총회장인 존 부케난<sup>John Buchanan</sup>은 인종 간 치유와 화해를 강조하였다. 209회 총회 (1997) 총회장인 파트리시아 브라운<sup>Patricia Brown</sup>은 이 주제를 계속 진행하며 인종 간 긴장을 완화함을 강조하였다. 2012년 220회 총회 (2012) 총회장 닐 프레스<sup>Neal Presa</sup>는 전국 민족인종목회 테스크포스를 임명하였다. 테스크포스가 밝힌 이슈 중에는 언어에 접근함과 문화 특성의 대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사항들로서 미국장로교 문서를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역,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자료들을 확장시키는 일이다. 221회 총회 (2014) 총회장인 히쓰 라다<sup>Heath Rada</sup>는 인종, 민족, 인종차별과 민족중심에 대한 전체교회의 대화를 계획할 팀을 임명하였다. 이들의 추천 사항 중에는 비-편향<sup>anti-bias</sup> 및 비-인종차별<sup>antiracism</sup> 교육을 교회대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인종간 화해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인종간 관계를 연구하는 정권위원회를 임명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sup>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sup>는 인종갈등,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관계된 옹졸함<sup>intolerance</sup>을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를 추천하였다.<sup>29</sup> 오바마 대통령은 이야기하기를, “흑인 생명 존중<sup>Black Lives Matter</sup>,” 소셜 미디어 운동 조직원들의 말을 빌려, 생명을 존중하며 유색인종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치안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염려는 현실이고 유효한 일이라고 하였다.

미국장로교회 그리고 물론 기독교사회는 인종 정의를 위한 분투에 반듯이 다시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들은 민족을 위한 도덕적 나침반을 반듯이 제공하기 위하여 정의, 평화, 그리고 화해를 향하여 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을 수립함에 관계하여야 한다.

새 천 년의 가장자리에 서서 볼 때에 인종차별은 탄력을 받으며 되살아나고 있다. 사회적 정책과 교단적 공고가 계속하여 포괄성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 및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과 정신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공격과 각 지역, 주, 그리고 국가적으로 선택한 후퇴적인 사회정책에 수동적이다. 여기에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인종차별의 되풀이 되는 모습과 중심적인 세력이 기관화되는 조직에 머무르고 있음을 고집어 내는 인종차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으로 안내하였던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할 방법으로는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의 미래를 지난날의 성과 위에 세워야 한다면, 국가의 현 상황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분석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다음 세기로 향한 우리의 방향을 안내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 *현대 인종차별 이해하기 Understanding Contemporary Racism*

인종차별을 이해함의 첫 번째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sup>racism</sup> 그리고 편견<sup>prejudice</sup>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두 [단어가 가져오는] 현상의 오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를 취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편견이란 정당한 검증과 사실 여부에 대한 관찰 없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는 반대일지언정 지속된다. 사실의 기초 없이 편견은 일차적으로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반응에 의하여 움직인다. 만약 편견이 인종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종편견이다. 그러나 인종 편견 하나만 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편견이 세력과 합쳐지면 이 때 인종차별이 된다. 세력이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명령, 조정, 그리고 지배하는 생산 능력이 있다. 세력을 조정하는 자들에게는 편견을 인종차별로 변화시키는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힘과 편견의 조합은 엄청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종차별은 힘과 편견의 결혼과 같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여 인종 편견 더하기 세력은 인종차별이라는 답이 나온다. 힘은 편견을 인종차별로 변화시킨다. 인종차별은 힘을 사용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준다.

인종차별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듯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무도 인종차별주의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억압되어서 태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함으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의 결과가 없는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함은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혜택을 입고 어떤 이들은 희생자가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배우면서 반듯이 현존하는 인종차별의 가치관과 구성을 잊고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두 가지로써 법률적으로 인종차별을 해체시키는 일과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인종차별을 뿌리 채 뽑아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노력으로서 헌신, 기도, 그리고 지속성을 통하여 이를 수 있다.

인종차별에 대한 깊고도 복잡한 이해를 분명히 하여, 교회는 인종차별을 해체시키는 법적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 삶과 사회에서 이것을 뿌리 채 뽑아내는 개인관계의 과정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도록 힘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일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되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변화의 촉매 및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 조직적 인종차별 Systemic Racism

인종차별은 조직적 힘으로 양육되고 지속된다. 세력은 개인의 조건이 아닌 사회적으로 이해함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인종차별주의자는 결론적으로 없다. 미국 안에서 활기차게 인종차별이 번창하기 위하여서는 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수락하는 광범위한 기후가 반듯이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의 추함과 호언장담으로서, 혼자만의 인종차별주의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고, 효과적인 인종차별은 책임 있는 승인과 신뢰할 수 있는 양육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의 세력은 바로 존경 받는 시민이 인정하는 힘으로서, 그들의 행동 혹은 행동하지 않음이 소통하는 일치로, 명백하게 완고한 편견자<sup>bigot</sup>를 지시하고 힘을 실어주며,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게 한다.”<sup>30</sup>

제도<sup>institution</sup>란 교육, 건강, 그리고 음식유통과 같은 기본적 충족 사항이며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조직된 방법을 말한다. 제도는 고립된 본체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체 관련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된 제도적 그룹은 교육, 건강, 교통, 혹은 경제적 시스템과 같은 것을 말한다. 사회적 힘은 우리가 창조한 제도와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

사회는 그들의 목표와 포부를 결정하여 주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동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속하는 세력을 행사함으로 그들 공동의 삶을 세우고 조직하는 일을 한다. 사회의 제도적 삶에 참여하고 접근하기 위한 힘은 우리 인류에게 기본적이며 긍정적인 것이다. 세력을 조정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러한 권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도는 어떤 그룹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sup>31</sup> 인종차별적인 제도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인간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다.<sup>32</sup> 많은 경우에 이는 힘을 행사하고 세력에 근접한 이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제도는 백인 사회의 힘과 특권을 보존하고 있다. 보상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어느 그룹에 속한 멤버인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백인들은 인종차별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인종차별적인 말을 뱉었는가 혹은 아닌가, 혹은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품었는가(증명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겠지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sup>33</sup> 유색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은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이것은 백인들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희생자와 가해자 두 개의 극단적인 갈림길로 감소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아픔의 현실로서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치유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친선<sup>goodwill</sup>의 백성임을 반듯이 명명하고 주장하여야 한다.

### 영적 문제로서의 인종차별 Racism as a Spiritual Problem

어쩌면 시민인권운동의 가장 돋보이는 업적은 분리주의적인 법적 기구를 해체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선의 뜻을 갖고 이러한 업적이 인종차별을 종식할 것으로 믿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답이 없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법적 분리를 해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인종차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함에 실패하였다는 것과, 또한 우리는 제도 혹은 시스템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종차별을 직면함에 실패한 것이다. 나그네 잡지 *Sojourners Magazine* 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인종차별은 영적 이슈이다. 그 원인과 해답을 [오직] 정부 프로그램, 사회 사역, 혹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의 권력은 영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영적 해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있다.<sup>34</sup>**

---

이 뜻이 설명하기를 정부와 사회 프로그램이 할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다룰 것은 제도적 구조에는 영적 단면이 존재함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러한 단면에 대하여 강제(enforceable) 할 수 있는 혹은 강제 할 수 없는 의무(obligations)에 관한 구분을 밝히고 있다. 강제 할 수 있는 의무는 사회의 법적 코드로 규제가 된다. 강제 할 수 없는 요구는 법적 코드의 범위를 넘어 선다. 이러한 의무들은 가슴에 새겨진 내적/영적 율법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서 유도된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말한다.<sup>35</sup> 인종차별의 영적 단면은 영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 *내면화 된 억압 Internalized Oppression*

인종차별의 영적 단면 한 부분은 내면화 된 억압으로 표현한다. 억압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도 그들 자신의 억압에 참여하고 있다. 억압된 자들은 억압 그 자체와 투쟁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 안의 압제자와 맞서서 투쟁 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은 억압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키기도 한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반듯이 해야 할 일은 적응해야 할 필요성과 상반하고 있음이다. 파울로 프레레(Paulo Freire)가 보듯이, 억압된 자들은 반듯이 선택을 하여야만 한다:

**인류의 연대 혹은 고립 사이에서; 처방전을 따름과 선택의 사이에서; 구경꾼과 배우의 사이에서; 연기함과 압제자의 행동을 통한 연기의 환상 사이에서; 밖으로 말하기와 침묵의 사이에서, 힘에 이끌린 창조와 재창조의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하기 위한 힘을 [선택한다]. 이것은 억압된 자들의 비극적인 딜레마로서 그들을 위한 교육이 반듯이 개입되어야 한다.<sup>36</sup>**

---

내면화 된 억압의 비참한 결과 중 하나는 개인과 사회의 현실적 모순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함이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의 차이가 흐려지며; 본인 스스로의 문제와 비애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쉬운 일이다.<sup>37</sup> 내면화 된 억압을 이겨내는 것은 억압받은 자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도전적인 영적 사업 중의 하나이다. 친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듯이 이해할 것은 압제자가 겪는 인종차별을 명명하고 인정함의 아픔을 느낌과 같이 억압받는 자들 또한 내면화 된 억압을 명명하고 주장함의 어려운 점이다. 인종차별로 인하여 내면화 된

억압이 생겨나고, 양육되며, 그리고 강화된 후에는 억압 자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음이다.<sup>38</sup> 그러므로, 치유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함을 요구할 것이다.

### *탐닉과 특권 Addiction and Privilege*

인종차별의 영적 단면에서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권세와 혜택에 중독되어 가는 정도이다. 중독이란 강박현상, 갈망, 혹은 무의식적으로 깊숙이 박혀 어떤 강하고 깊은 의존에 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멈추는 것이 어려움을 말한다. 권세와 혜택에 대한 중독은 압제자의 문제로서 그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영적 도전이다. 이것은 두 개의 단계로 표현되는데: 지식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있다. 인종차별이 도덕적으로 그릇됨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동시에 파생되는 그 힘과 혜택을 감성적으로 붙잡고 있음은 둘 다 모두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압제자를 합리화 시키고 인종차별로부터 받는 혜택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다루어 억압받는 자가 겪는 부정적인 충격보다 인종차별로 얻는 혜택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한다. 부정<sup>denial</sup>은 흔한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의 부정적<sup>negative</sup> 결과는 백인과 유색인종들에게 다른 느낌의 긴급함으로 다가온다.

혜택과 권세에 대한 중독성을 다룬다는 것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영적 과제이다. 대중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이러한 중독은 인종과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세움에 더 어려운 장벽으로 존재한다. 캐서린 믹스<sup>Catherine Meeks</sup>는 이 점을 교회 안에서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 소개한다:

*...백인과 흑인들이 하나의 예배공동체로 함께 하지 못함은 예배 스타일의 차이점 보다는 과거의 역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흑인들에게는 어린이로 취급 받는 것에 대한 거절이요 백인들에게는 그들의 힘을 나누길 원치 않음이 문제의 핵심이다.<sup>39</sup>*

하나님을 의지함이 권세와 특혜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열쇠이다. 오로지 기도와 예배가 인종차별을 이겨내는 태스크에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추천하는 도전과 기회를 둘 다 반듯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인종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중심적인 현장이고 양분화를 조성하는 곳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인도하는 곳이다.

## **인종차별 해체하기 DISMANTLING RACISM**

인종차별은 압제자와 억압받는 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백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인종차별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의 나이가 되기 오래 전에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그들을 형성하여 버렸다. 유색인종은 억압받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제도적 인종차별은 인종의 차이를 기초로 한 제한된 미래의 삶과 좁게 정의된 사회적 가치로 미리 정하여 놓은 항목을 강요하고 있다. 압제자와 억압받는 자에게 인종차별이 주는 영향력은

사뭇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인종차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삶을 함께 세워 나가는 공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sup>40</sup>

인종차별의 유산과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희망이 있다. 만약 이것을 직면할 용기가 있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압제자와 억압받은 자 모두 현재의 현실을 바꾸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인종차별을 해체하도록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제도적인 인종차별의 되풀이 유지되는 중심의 권세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미래에 세운다면,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개인적 개입과 제도적 변화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210회 총회(1998)에서 승인된 민족 인종부 교회성장 전략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인종문제에 대하여 잘 문서화되어 있음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개입이 없이 다문화 사회의 관심을 제대로 섬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강화된 노력으로 민족 인종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를 들어 비 인종차별 훈련과 같은 개입의 방법론을 반듯이 고용하여, 역사적으로 교회가 유색인종을 포함하기를 방지한 제도적 행동에 필요한 개혁의 효과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 인종차별, 편견, 차별, 권한 상실, 그리고 문화적 경시 등 이 모든 것들이 민족 인종교회의 성장을 방해한다. 민족 인종교회 성장은 불가분적으로 인종 정의를 위한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민족 인종교회 성장의 전략자원에 투자하면서 인종차별과 다른 사회적 부당함을 맞서 투쟁함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를 생략하고 다른 한 가지만 실행하는 것은 실패의 처방전이라고 본다.<sup>41</sup>*

인종차별의 충격은 확장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체 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은 교회로선 도전적인 일이다. 반 인종차별 훈련은 교회가 반 인종차별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sup>42</sup> 반 인종차별 훈련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제도적인 영향력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해체하고, 몰아냄이 아니라 포함시키고,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가르칠 수 있다.

성령은 개인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로교인들 안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인종차별의 이슈를 말하는 장로교인들의 성장하는 헌신을 목격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노회와 회중들이 인종차별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있다. 몇 대회 및 노회들은 반 인종차별 팀을 구성하였고 팀 사역을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팀을 조직하고 훈련을 준비한다. 어떤 이들은 계획 단계 초기 상태에 있다. 어떤 회중들은 반 인종차별 개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1997년에 장로교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은 인종차별에 대한 두 개의 컨퍼런스를 후원하였다. 약 1,500명이 참석하였다. 장로교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은 그 사역의 지속된 부분으로서 인종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장로교 여성들도 1997-2000 정기 모임에서 인종차별과의 전쟁을 우선 순위로 잡고

300,000 회원들에게 지역 회중과 사역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sup>43</sup> 장로교 건강, 교육, 그리고 복지 협의회(PHEWA)는 컨퍼런스의 워크샵과 세미나로 인종차별을 다루었다. 만약 교회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꼭 그래야만 한다, 우리 역사의 진로는 바뀔 수 있고 이 나라의 소란스러운 불화는 형제, 자매, 그리고 모두의 자유를 위한 심포니로 변화 할 줄 안다.

## 일곱 겹의 전략 SEVENFOLD STRATEGY

제안된 전체교회 전략은 7겹으로서 다음과 같다: 총회, 대회, 노회, 회중, 교육기관, 관련기관, 그리고 에큐메니칼 파트너이다.

인종차별을 해체하기 위한 태스크는 공동의 노력으로서 교회의 모든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도란 사회적 현실에 따라 다르기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반듯이 유연함과 적응력을 갖고 인종차별의 해체를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법들이 지속되어야만 하고 전체 교회와 에큐메니칼 관계에서 반 인종차별을 지원함을 발전시키는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반듯이 회중 및 교회주위의 다른 현장과의 대화로 시작한다. 대화가 효과적이기 위하여, 그 출발점을 우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깨어진 모습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이 예배와 일을 하기 위하여 평상시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디자인 됨이 절대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상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든 대화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결함<sup>integrity</sup>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화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역학<sup>dynamic</sup>을 넘어서 인종차별의 학습된 행동기반과 우리사회를 양분화 한 구조적 표명<sup>manifestations</sup>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몸부림<sup>grapple</sup>이어야 한다. 원인의 뿌리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편견<sup>prejudice</sup>과 편협한 신앙<sup>bigotry</sup>만 다루는 것은 핵심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극화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대화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먼저 솔직하여야겠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 솔직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반듯이 문제를 파악하여, 요구할 권리를 찾고, 그리고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여정은 고백, 용서, 구원, 그리고 변화로 시작한다. 이러한 사역이 대화 속에 관계없는 내용들이 난무함을 방지하여줄 것이다.

대화가 필요한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문제의 공통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공동의 비전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된 비전은 개인의 삶, 제도, 구조, 그리고 실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여준다. 대화는 반듯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이는 진행상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기준점이 세워지면 비전을 이루어나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확인하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전략을 디자인하여 인종차별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과정은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어쩌면 매년, 평가함에 임한다.

선의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식하기를 교회와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죄를 박멸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 순위임을 정하고 있다. 이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은

몇 세기의 인종차별 양극화에 놀려 새로운 비전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긴 여정으로서 식별, 기도, 그리고 행동을 동반한 예배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절차, 대화의 표본, 예배와 성경공부 계획, 비전세우기 방법론, 전략, 그리고 참여를 안내하는 반 인종차별에 관한 소책자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모듈이 추가되고, 또한 교회에 제공되었다. 그리고 학습 가이드가 제작되어 [www.pcusa.org/racialjustice](http://www.pcusa.org/racialjustice) (장로교 총회 선교국의 인종 정의 웹사이트) 있다.

## 참여 포인트 POINTS OF ENGAGEMENT

제안된 전체교회 전략은 다각적인 방법이며 총회, 중간 공의회, 회중, 교육 기관, 관계 기관, 그리고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 관련되어 있다.

### 총회/General Assembly

훈련과 교육은 교회를 다음 세기의 인종 정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도록 무장시키는 태스크의 완전한 영역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로교 선교국은 다음과 같이 사역에 임한다:

- 총회 공의회 (지금은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1997년 2월 결정에 의한 장로교 센터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 인종차별과 문화 겸손 훈련을 제공하며, 이는 전국의 모든 직원들에게 반 인종차별 훈련을 시행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미국장로교회 재단, 총회 사무국, 장로교 출판국, 장로교 투자 및 용자 프로그램, 그리고 연금국 등을 말한다. 가장 최근에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는 문화 겸손 훈련을 2015년 9월 정기모임에서 가지었다.

- 중간 공의회의 팀과 진행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핵심 팀 모집, 훈련, 및 위임하기.
- 노회와 대회와의 협력으로 반 인종차별 사역을 지원 및 사역하기.

장로교 선교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반듯이 하여야 한다:

- 회중의 반 인종차별 사역을 위하여 교회학교 교과과정을 보충하는 비전을 세우고, 발전시키며, 또한 홍보하는 공개 토론회를 시작한다. 보충의 교과과정은 확장된 기간의 시간을 위하여 디자인되며 모든 연령층에 해당된다. 성인 및 청소년 교과과정은 회중의 반 인종차별 사역에 더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화된 수업과정을 준비하고 추가의 훈련을 완수한 자들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유치원 교과과정을 디자인 할 때 참여자들이 다음 과정에 나이와 성숙도를 가지고 진급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여 준다: (a) 문화 안의 부정적 가치관과 영향력에 맞서는 다른 관점을 초기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계속되는 지원과 양육을 제공한다; (b) 이는 문화 간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꿈의 가치관을 지속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의 시작이다. 이러한 모습의 교과과정은 약간의 필드 테스트와 치밀한 사고<sup>refinement</sup>가 요구된다. 도심지와 시골 모두

다양한 환경에 위치한 지역 회중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다.

### *대회 Synods*

- 대회는 각 지역을 바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적인 훈련의 행사 및 다른 활동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대회는 그들의 직원을 대상으로 반 인종차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회는 각 노회의 반 인종차별 사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노회 Presbyteries*

• 규례서 섹션 G-3.0103은 인종차별 이슈를 전하기 위하여 노회를 포함하여 교회 공의회에 제공되고 있다. 노회는 총회 기관과 협력하여 회중들을 도와 반 인종차별 프로그램과 사역을 지원하고 세워주는 하나의 노회조직으로 반 인종차별 팀을 위임, 훈련, 모집 할 필요가 있다.

- 노회는 그들의 직원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반 인종차별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회중 Congregations*

반 인종차별 사역의 중앙부 장식은 회중이다. 이곳은 바로 도덕적 가치관이 교육되고 양육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이곳은 문화 간<sup>intercultural</sup> 사회<sup>society</sup>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관 양육의 지원을 가족단위로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예배와 양육이 함께 하며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관이 영속<sup>perpetuate</sup>되도록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회중이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은 인종과 문화의 경계선을 넘는 소통의 다리를 세우는 공동체의 효과적인 변화를 위함이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배워가며 함께 예배한다. 그러므로 직원을 포함하여 지역회중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반 인종차별 사역 및 공동체 조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 *교육 기관 Educational Institutions*

• 신학교는 미래 목사, 기독교 교육가,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을 위하여 훈련하는 곳이다. 이곳은 또한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더들을 준비시키길 원하는 교회의 요구를 연구하는 장소이다. 신학교에는 성서에 기초한 반 인종차별 신학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극히 중대한 역할이 있다. 이는 문화 간 및 다인종 사회의 효과적인 리더십 배양을 찾는 목사들과 교육자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신학교는 반 인종차별 사역을 돕는 발전적 과목을 제공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현장 체험의 한 부분으로 반 인종차별 훈련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신학교에 기초한 훈련제도는 반 인종차별 사역을 발전시키고 또한 검증하는 모델임과 동시에 목사

평신도 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 대학 및 종합대학들도 교회와 사회의 반 인종차별 사역을 위한 미래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인종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민족 인종교회 성장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대학 및 종합대학들은 모든 인종의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며 교육하는 기본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 *관계된 기관 Related Agencies*

미국장로교회는 여러 기관들과 함께 사역한다. 인종차별의 이슈에 관하여 서로 협력관계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하는 대화가 시도될 수 있다.

### *에큐메니칼 파트너 Ecumenical Partners*

제도적 인종차별은 악의적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의 요인은 선의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음에 있다.<sup>44</sup> 미국 복음 루터란 교회, 미국 개혁신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그리고 미국장로교회 사이에 맺은 협약은 상호 지원, 계획, 자료 발전, 그리고 조정을 통한 인종 정의의 효과를 증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협력하여 일하는 교회는 60년 및 70년 대에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겪는 인종차별의 투쟁은 교회들이 더욱 더 조정 및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역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위 교단의 관계된 직원들은 이미 여러 모임을 가지었다. 이 일은 반듯이 새로운 활기로 계속되어야 한다. 목표는 더 일치되고 조정된 방향으로 인종차별과 투쟁하고 또한 반 인종차별 사역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훈련과 연합한 자료를 개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찾는 것이다.

## **자금과 직원 FUNDING AND STAFFING**

교회의 반 인종차별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알맞은 직원채용은 본질적인 것이다. 국가에 점차적인 인종적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인종 관계에 종사 할 인력의 필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만약 교회가 교단 전체의 반 인종차별 프로그램을 돕는 수요 증가에 반응한다면, 추가적인 직원 채용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반 인종차별 사역을 위한 필요성만이 아니라, 민족 인종 교회 성장 전략의 절대적인 본질로서, 유색인종을 교회 안에 포함하지 못하는 인종 부당성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sup>45</sup> 교회는 민족 인종 사역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민족 인종 교회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어떤 사역이든지 재정을 확보함은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의 안정은 다음 세기의 효과적인 반 인종차별 사역을 교회가 유지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하나의 재정자원은 인종 정의를 위한 호킹스 부캐년<sup>Hawkins Buchanan</sup> 기금이다. 이것은 장로교 센터의 몇 직원과 208회 총회 (1996) 총회장인 존 부캐년<sup>John Buchanan</sup>이 세운 기금으로서 인종 정의와 반 인종차별 사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 참고 문헌 BIBLIOGRAPHY

- A Study of The Belhar Confession and Its Accompanying Letter*, Eunice T. McGarahan, Office of Theology and Worship, PC(USA), [www.pcusa.org/resource/belhar-confession-study-guide](http://www.pcusa.org/resource/belhar-confession-study-guide).
- Ansell, Amy, *New Right New Rac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 Barkun, Michael, *Religion and the Racist Right*, revised edition,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 Batstone, David, Editor, *New Vision for the Americas: Religious Engage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Bjorgo, Tore and Jeffrey Kaplan, eds., *Nation and Ra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 Barndt, Joseph, *Dismantling Racism*, Minneapolis: Augsburg Press, 1991.
- Brown, Dee,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New York: Bantam Books, 1970.
- Building an Inclusive, Caring Community through Dialogue*. Produced by Presbyterian Women, Inc., 이 인쇄된 자료는 그룹 진행자를 단계별 대화를 통한 공동체 만들기 과정으로 안내한다, PDS #PWR03121.
- Civil Rights Issues Facing Asian Americans in the 1990's*: A Report of the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February 1992.
- Confession of Belhar. [www.pcusa.org/resource/belhar-confession/](http://www.pcusa.org/resource/belhar-confession/).
- Demott, Benjamin, *The Trouble with Friendship: Why Americans Can't Think Straight About Race*,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5.
- Derman-Sparks, Louise & Phillips, Carol Brunson, *Teaching/Learning Anti-racis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7.
- Gonzalez, Justo L. *Santa Biblia: The Bible Through Hispanic Ey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Gossett, Thomas F., *R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Gregory, Steven, and Roger Sanjek, eds., *Ra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6.
- Gunning Francis, Leah, *Ferguson and Faith: Sparking Leadership and Awakening Community*, Danvers: Chalice Press, 2015.
- Hadjor, Kofi Buenor, *Another America: The Politics of Race and Blame*, Boston: South End Press, 1999.
- Harvey, Jennifer, *Dear White Christians*, Grand Rapids: Eerdmans, 2014.
- Hearing and Singing New Songs to God: Shunning Old Discords and Sharing New Harmonies. Report of the Women of Color Consultation Task Force To the 218th General Assembly (2008) [www.pcusa.org/resource/hearing-and-singing-new-songs-god-shunning-old-dis](http://www.pcusa.org/resource/hearing-and-singing-new-songs-god-shunning-old-dis).
- Jencks, Christopher, *Rethinking Social Polic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Kivel, Paul, *Uprooting Racism*, Gabriola Islands,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6.

Lee, Jung Young, *Marginal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Patterson, Orlando, *The Ordeal of Integration*, Washington, D.C.: Civitas, 1997.

*Presbyterian Social Witness Policy Compilation*, Chapter 8 on Race and the Rights of Minorities in America, access at [www.pcusa.org/acswp/](http://www.pcusa.org/acswp/).

*Race in a Post-Obama America: The Church Responds*. Multi-author. Westminster John Knox Press, forthcoming 2016.

*The Racism Study Pack*, The Thoughtful Christian, the studies may be purchased individually or as a set, [www.thethoughtfulchristian.com/Products/TC0385/the-racism-study-pack.aspx/](http://www.thethoughtfulchristian.com/Products/TC0385/the-racism-study-pack.aspx/).

Rendon, Armando B., *Chicano Manifesto*,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41.

Rutstein, Nathan, *Healing Racism in America*, Springfield, Mass.: Whitcomb Publishing, 1993.

Takaki, Ronald, *Iron Cages*, New York: Alfred A. Knopf, 1979.

Wellman, David T., *Portraits of White Racism*,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West, Cornel, *Race Matters*, Boston: Beacon Press, 1993.

Wilmore, Gayraud S., *Black and Presbyterian*, Louisville: Witherspoon Press, 1998.

## 미주 ENDNOTES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Book I, Chapter I, pp. 35–39.
2.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Ps. 8:4–5);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Mic. 6:8), KRV.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p. 375–76; 404–5.
4.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Book III, pp. 348–423.
5.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찌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Amos 5:22–24, KRV).
6. Abraham Heschel, *The Prophets*, Volumes I & II, (New York: Harper and Rowe, 1961–62).
7. See James M. Washington, ed.,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tin Luther King, Jr.* (San Francisco: Harper, 1986), pp. 117–25.
8. James M. Washington, *A Testament of Hope*, pp. 43–53; 217–20.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Two, Chapter I, pp. 39–241.

1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Two, Chapter I–III, pp. 239–309.
11.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ume I*, (New York: Scribners, 1964), pp. 178–264.
1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Two, Chapter XV, pp. 189–92.
13. Karl Barth, *Church Dogmatics*, Book IV, Doctrine of Reconciliation; Hughes Old, *Reformed Worship*.
14. Stephen Carter, in a recent book, *Integrity*,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6), p. 7, 개인의 청렴을 평가하는 세 겹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개인적인 희생이 있을지언정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옳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한다. 카터의 삼부작은 기업-제도적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고 높은 관계성이 있다. 기업의 청렴은 삼중 겹 기준의 생산능력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다.
1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Book IV,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Edinburg: T & T Clark, 1958).
16. *Book of Confessions*, PC(USA), Section 9.44.
17. Walter Brueggemann, *Living Toward a Vision: Biblical Reflections on Shalom* (N.Y.: United Church Press, 1982); James DeOtis Roberts, *Reconciliation and Liberation: A Black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1; Revised Edit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4).
18. See the *Book of Confessions*; *Book of Order*; Hughes Old, *Reformed Worship*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John Leith, *Creeeds of the Church*, Third E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9. W. E. B. Dubois, *The Souls of Black Folk* (New York: Fawcett Publications, Inc., 1961), p. ix.
20. Herbert Hill & James E. Jones Jr., eds., *Race in America*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3), pp. 83–96.
21. For a discussion of affirmative action see: Barbara R. Bergmann, *In Defense of Affirmative A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96); George Curry, ed., *Affirmative Action Debate* (Reading, MA: Addison-Wesley, 1997), pp. 241–58; Orlando Patterson, *The Ordeal of Integration* (Washington, D.C. Civitas, 1997), pp. 147–69.
22. See Gayraud S. Wilmore, “COCAR: The First Five Years,” *Church & Society*, (New York: PC(USA), November/December, 1987), p. 61.
23. See Gayraud S. Wilmore, “COCAR: The First Five Years,” *Church & Society*, (New York: PC(USA), November/December, 1987), pp. 60–67.
24. Ester Stine and Gaspar Langella, “Social Teachings of the Presbyterian Church,” *Church & Society* (New York: PC(USA), 1984, Volume LXXV, No. 2), p. 28.
25. For a discussion of Black Power and Black Liberation Theologies see: Stokely Carmichael and Charles V. Hamilton, *Black Power: The Politics of Liberation in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1967); James Cone,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J. B. Lippincott, 1970); Gayraud S. Wilmore and James Cone, *Black Theology: A Documentary History, 1966–1979*, (New York: Orbis, 1979).
26. For a discussion of racism and integration see: Otis Turner, “The Web of Institutional Racism,” *Church & Society*, (Louisville, Ky.: PC(USA), September/October, 1991), pp. 22–23.
27. *Minutes*, UPCUSA, 1981, Part I, p. 201.
28. See Andrew Hacker, *Two Nation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2); The Kerner Report: The 1968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 (New York: Pantheon Books, 1968).

29. *UN Chronicle*, No. 2, 1997, p. 58.

30. C. Eric Lincoln, *Race, Religion, and the Continuing American Dilemma* (New York: Hill and Wang, 1984), pp. 11–12.

31. Max L. Stackhouse, “Institutions/Institutionalizatio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p. 304.

32. Max L. Stackhouse, “Institutions/Institutionalizatio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p. 304.

33. Jim Wallis, “The Legacy of White Racism,” *Sojourner’s Magazine* (1988), p. 9.

34. *Sojourners*, “Crossing the Racial Divide: America’s Struggle for Justice and Reconciliation,” 1998, p. 5. 37

35. See James M. Washington, ed.,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tin Luther King, Jr.* (San Francisco: Harper, 1986), pp. 123–24.

36.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Corporation, 1985), pp. 32–33.

37. For a discussion of internalized oppression see: Otis Turner, “The Web of Institutional Racism,” *Church & Society*, (Louisville: PC(USA), September/October, 1991), pp. 20–22;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Corporation, 1985), Chapter I;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1967); Carter G. Woodson, *The Miseducation of the Negro*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Inc., 1990), Chapters I–VI.

38.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pp. 32–33.

39. Catherine Meeks, “At the Door of the Church,” in *America’s Original Sin: A Study Guide on White Racism*, *Sojourners Magazine* (Washington, D.C.: 1988), p. 15.

40. 이것은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인종차별의 심리적 충격이 주는 상태의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억압자가 갖는 결과는 억압받는 자가 경험하는 파괴적인 결과에 비하면 약할 뿐이다. 공통점은 인종차별이 가져오는 정하여진 관계형식의 사실로서 해체 없이는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 관점에서 인종차별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조정한다.

41. Racial Ethnic Church Growth Strategy Report, *Minutes*, 1998, Part I, pp. 89; 406–17, esp. 414.

42. 반 인종차별주의는 의도적인 것으로서 인종차별적인 생각 혹은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인류애와 존엄까지도 지지하는 동시에 인종차별의 죄와 맞서는 것이다.

43. This was communicated to Otis Turner, associate for racial justice, in a letter dated September 25, 1998.

44. James M. Washington, ed.,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of Martin Luther King, Jr.*, p. 296.

45. Racial Ethnic Church Growth Strategy Report, *Minutes*, 1998, Part I, p. 414.

전체교회 반 인종차별 정책 팀을 대표하여 장로교 선교국은 222회 총회 (2016)에게 개정된 전체교회 반 인종차별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천사항들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총회 공 서기에게 지시하여 장로교 개인들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되며 유지되는 인종차별 구조상의 암시적 치우침을 본인 스스로 자체 검사하도록 정보통신을 사용하여 교회에 도전한다.
2. 총회 사무국에 지시하여 개정된 정책과 따르는 학습 가이드를 회중이 공부하고 논의하도록 제공한다.
3. 중간 공의회에 주장하여 성희롱, 학대 방지, 및 임원 훈련과 마찬가지로 암시적인 성향과 반 인종차별의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하루 연례 행사를 제공한다.
4. 중간 공의회 사역 사무처에 지시하여 목회위원회 및 목사후보생 위원회(혹 그와 동등한 지역조직)훈련을 위한 반 인종차별 혹은 문화적 겸손에 해당되는 최상의 실례들을 파악하고 자료들을 배포한다.
5. 장로교 선교국의 정보통신 사무처에 지시하여 회중과 중간 공의회 및 다른 조직들의 인종차별을 해체하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배포한다.
6. 전국 교회 기관들에게 지시하여 정보통신 계획을 위한 공동 작업으로서 암시적 성향과 반 인종차별에 대한 자료를 나누고, 또한 암시적 성향과 반 인종차별의 정보를 중간 공의회, 회중, 그리고 장로교와 제휴된 기관들에게 배포하는 전자 캠페인을 만든다.
7. 현존하는 여섯 개 기관의 리더십 개발 시도를 장려하여 반 인종차별 훈련을 포함하게 한다.
8. 미국장로교회 기후변화 보고서의 원칙과 목표를 권하며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른 직원 채용 목표와 고용 관행을 준수할 것을 장려한다.
9. 인종 민족 중요성을 위한 옹호 위원회(ACREC)의 교회의 반 인종차별을 위한 지속된 헌신과 우리의 부족을 책임 있게 보유하여 주도록 권한다.
10. 장로교 대학 및 종합대학 협의회 (APCU)에 주장하길 회원 기관들이 학생, 교수,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암시적 성향과 반 인종차별에 관한 훈련, 문화적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교과과정, 그리고 채용정책을 검토하여 교수와 직원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길 장려한다.
11. 신학교육 위원회(COTE)에 주장하여 회원 신학교들이 학생, 교수,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암시적 성향과 반 인종차별에 관한 훈련, 문화적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교과과정, 그리고 채용정책을 검토하여 교수와 직원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길 장려한다.
12. 회중을 장려하여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성인 교육 시리즈를 통하여 유색인종이 저술한 책 혹은 기사를 제공한다. (따르는 학습 가이드에 제안되어 있다)
13. 반 인종차별을 일관되게 시행한 여러 유형의 선교 프로그램들을 권하고 교회의 모델로서 그들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장려한다.